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9. **WINTER**

VOL. 16

INVESTMENT

지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2020년 투자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

SPECIAL COLUMN

연말, 우리 경제에 찾아올
블랙스완이 있다면?

WM CLASS

2020년부터 바뀌는 세법,
미리 대비하면 돈이 되는 세테크



행복은 가까이 있다

연초부터 미국의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하락, 내수부진 등의 악재가 겹쳤다.

게다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고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신년 초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한국의 경제위기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 년 내내 경제 상황이 흑한기다.

꽃피는 봄과 한껏 달아올랐던 여름, 낭만적인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았다. 우리의 몸도, 경제 상황도 얼어붙었지만 그럼에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어본다. 그저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이라고. 분명 행복은 가까이 있다고.

한 해의 끝은 새해의 시작과 맞물려 있다.

2019년은 차분히 마무리하고

2020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자.

어쩌면 새해 시작과 동시에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미래가

반갑게 인사를 건넬지도 모르니까.

Words 박영화

Contents

2019. WINTER VOL. 16

02 PROLOGUE

행복은 가까이 있다

04 SPECIAL COLUMN 1

연말, 우리 경제에 찾아올 블랙스완이 있다면?

08 SPECIAL COLUMN 2

소액으로! 공실 걱정 없이! 다재다능한 리츠 투자

12 SPECIAL COLUMN 3

채권시장, 이제 버블(거품)에 대비해야 한다

16 INVESTMENT

지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2020년 투자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

20 WM CLASS

2020년부터 바뀌는 세법, 미리 대비하면 돈이 되는 세테크

24 WM CENTER

한남동WM센터, 한 방향으로 모두가 함께하기에 빛나는 경쟁력

28 TRAVEL

추위가 없는 곳에서의 겨울 휴가, 베트남 달랏 & 뉴질랜드

34 BRAND STORY

Watch the Watch

36 TODAY'S ART

변하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 장윤영 민화 작가

40 BOOK AND MOVIE

<82년생 김지영> 그래도 희망은 계속된다

42 IBK FUND

이달의 추천 펀드



발행일 2019년 12월 5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기획·디자인·제작·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 우리에게 찾아올 블랙스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블랙스완을 예측한다는 자체가 모순일 수 있겠지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라도 다음의 3가지 블랙스완에 대해 정리하고 가는 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Words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진 투자건설링 대표

연말 우리 경제에 찾아올 블랙스완이 있다면?



* 블랙스완

(Black Swan, 검은 백조)

1697년 영국의 자연학자인 존 라삼은 호주 서쪽에 있는 스완강에서 '검은 백조'를 발견했다. 백조는 '하얀색 새' 이기에 붙여진 건데, 알고 보니 인류의 태고적 고정관념을 깬 검은 백조가 실존하고 있었다. 이후 블랙스완은 '불가능하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홍콩 시위, 위안화에 주목하자

'파괴력'만으로 봤을 때 올 연말까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악재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홍콩 시위'를 꼽을 것이다. 물론 미·중 무역협상이란 거대 악재가 상존한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경우 그간 사골국처럼 많이 우려먹었다. 충격이 큰 만큼 시장도 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에 대해서도 시장은 향후 로드맵까지 그리고 있다.

하지만 홍콩에서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 시위는 어디로 될지 모르는, 시장이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블랙스완' 같은 존재이다. 홍콩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메가톤급 충격이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위안화'이다. 중국에선 이런 말이 있다. 중국이 미 달러화를 조달하는 3개의 창구가 있는데 바로 상품계정, 자본계정 그리고 '홍콩계정'이라고. 그렇다. 홍콩은 아시아의 최대 금융허브로 달러가 넘쳐나고, 중국에 이뤄지는 외국계 자금들의 투자는 모두 홍콩을 경유한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달러 이탈 현상'이다. 이미 홍콩에서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으며 홍콩 시위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들은 더 많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홍콩 시위대는 홍콩의 ATM기에서 돈을 대거 인출하면서,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까지 시도하고 있다. 홍콩 금융시장을 봉쇄한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 위안화를 흔들어 위안화 가치 급락으로 이어진다.



위안화 가치 급락과 홍콩 증시 연계 ELS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위안화와 함께 움직이는 한국 원화 가치도 함께 급락하며 환율이 급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외국계 자금 이탈까지 겹치면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까지 커지면 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홍콩 증시와 연계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물량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홍콩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 규모는 32조 원이고, 올 3월 기준 미상환된 전체 물량은 약 43조 원에 달한다. 물론 이 ELS가 원금손실 구간에 들어가려면 홍콩 증시가 향후 20~30% 정도 급락해야 한다. 홍콩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급락하려면 홍콩 시위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거나 중국 외환시장에 균열이 발생해야 하기에 "괜찮다"고 낙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린 블랙스완을 걱정하고 있다. 꼼꼼하게 챙기고 대비해서 나쁠 건 없어 보인다.

도이체방크가 파산한다면?

1870년 설립된 도이체방크는 한때 세계 최대 은행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현재 독일 최대 은행이다. 그런데, 최근 바로 이 도이체방크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 "파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도이체방크 파산 관련 이야기가 처음 등장했던 건 지난 2015년 연말이었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도이체방크가 소비자 금융 부문을 매각하면서



부정적인 기사가 집중됐는데 결과적으로 이후 잠잠해졌다. 그런데, 연초부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임직원을 2만 명 가까이 감원한다는 계획과 지속되는 수익성 악화가 불거지면서 주가는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되자 지난 2008년 말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계속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도이체방크의 실적을 살펴보자. 도이체방크는 이미 지난 2분기 31억 5,000만 유로, 그러니까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기록했는데, 3분기에도 8억 3,200만 유로, 약 1조 원대 손실을 기록했다. 2분기 연속 적자 행진인 것인데 4분기에도 뚜렷한 반등 조짐은 없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대규모 구조조정에 거는 기대도 줄어들고,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이체방크가 이렇게 힘들어진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 저금리, 나아가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불황까지 더해지면서 은행 수익에 타격을 줬던 것이다. 그리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기존 대출회수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견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는 처음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던 2016년 6월 23일부터 세계 경제의 핵폭탄급 블랙스완이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충격의 3배 이상

이번 도이체방크 파산이 무서운 '블랙스완'이 될 수 있는 건 그 규모가 예측 불허이기 때문이다. 대략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도미노 파장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때의 3~4배 이상이 될 듯하다. 트리거는 바로 도이체방크의 파생상품이다. 도이체방크 파생상품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수년간 JP모건, 씨티그룹 등 미국 대형은행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이미 유럽 금융시장뿐 아니라 미국 은행들과의 시스템 상호 연관도 매우 높다.

IMF(국제통화기금) 또한 최근 세계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 시스템리스크' 리포트에서 도이체방크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금융사로 지목했다. '금융사 시스템리스크'는 단일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세계 경제에 연쇄적 파장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것인데 도



이체방크의 부정적 파급력이 역대 최대라는 이야기다.

다만, '도이체방크 파산설'에 대해서는 정반대 시각도 존재한다. 도이체방크 파산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살려낼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로 은행의 파산은 스스로 선언해야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엔 유럽 중앙은행(ECB)이 도와줄 것이고, 여차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자금을 넣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도이체방크와 직접 거래하는 국내 금융사가 매우 적어 국내 은행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브렉시트, 너무 과소평가됐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는 처음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던 2016년 6월 23일부터 세계 경제의 핵폭탄급 블랙스완이었다. 당시 국민투표 결과는 브렉시트 찬성 52%, 반대 48%였다. 세계 증시는 2~3일간 급락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시큰둥해졌으며 당초 예정일이었던 지난 2019년 3월 29일이 다가왔을 때도 공포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번만이 아니다.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이 계속 빠져거리며 예정일도 4월 12일, 이어 10월 31일 등 2차례나 연기됐지만 '노 딜(No Deal)'에 대한 위기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후 브렉시트 예정일은 다시 세 번째 연기되며 오는 2020년 1월 31일로 미뤄진 상태이다.



12월 12일 조기 총선이 변곡점

EU는 더는 연장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바로 12월 12일 조기 총선이다. 지금까지 강력한 브렉시트를 주장하며 “협상이 안 되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보수당)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 브렉시트가 엄청난 블랙스완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본다. 가령, 조기 총선에서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승리한다면 '노 딜 브렉시트'의 공포가 커질 것이다. 이번만이 아니다. 반대로 야당(노동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은 다시 극대화된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 브렉시트를 놓고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정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국민투표를 했는데 또다시 브렉시트 찬성이 나온다면? 참고로 영국과 유럽연합이 정교한 계획 없이 헤어지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이걸 아마 갓돈 급 충격이 된다. 무엇보다 그간 브렉시트라는 악재가 과소평가돼왔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WIN CLASS





소액으로! 공실 걱정 없이!

다재다능한 리츠 투자

전 세계적으로 공모 상장 리츠가 인기다. 리츠란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의미한다. 보통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 임대수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장 리츠란 부동산 임대소득을 배당금으로 주는 주식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처럼 은행 이자율은 1%대인 저금리 상황에서 배당수익률 4~6%가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에 부침이 없을 순 없지만 배당수익률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Words 김제림 매일경제신문 기자

리츠의 매력

2019년 10월 공모청약을 마친 롯데리츠는 청약증거금으로 4조 7,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4월 홈플러스리츠가 상장에 실패하고 오프라인 리테일의 전망에 대해선 암울한 뉴스만 나오는 와중에서도 배당수익률 6%의 힘으로 주타자들을 끌어모은 것이다. 거기가 상장 첫날인 10월 31일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가격 상승폭 30%)까지 치솟았다. 신한알파리츠는 올 들어 주가가 60%가량 올랐다.

저금리 시대에는 리츠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이다. 두 번째는 리츠 회사들이 자금 조달 레버리지 비용이 줄어들게 돼 순이익이 올라간다. 이는 배당금 상승으로 돌아온다.

특히나 정부에서도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며 공모 리츠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9월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모리츠에 대해 5,000만 원 한도로 일정 기간(약 3년)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 9%)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은 리츠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최고 세율 42%의 누진과세가 부과되는 데 세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이다.

저금리에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 일반적인 상가 및 오피스 투자보다 리츠로 관심이 더 몰리고 있는 이유는 간접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 강화, 자금출처 조사 강화 등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도 손쉽게 종목 매입으로 할 수 있는 리츠 투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리츠의 배당은 취득세, 거래수수료 등을 다 제하고 낸 돈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라면 리츠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부동산 투자, 리츠가 대세

과거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대명사는 상가나 오피스텔이었지만 최근 높아지는 공실률과 낮아지는 임대수익률은 갈수록 부담이다.

리츠에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지분형(Equity) 리츠, 부동산담보대출에 투자하는 부채형(Mortgage) 리츠 그리고 양쪽을 조합한 혼합형(Hybrid) 리츠가 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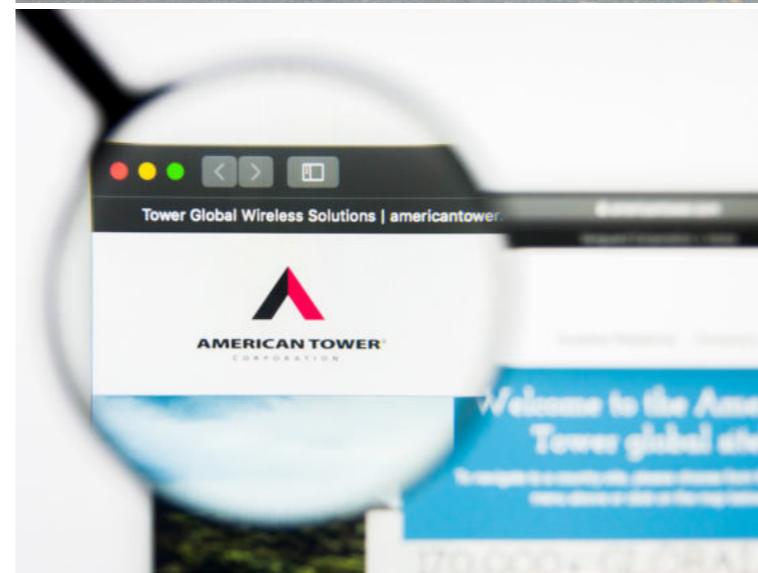
실제 상가 투자는 세금이나 수수료도 투자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동산의 안정성과 주식의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리츠를 선호하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는 일단 취득세와 재산세가 붙는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야 집을 살 때 취득세 1.1~3.5%에 일 년에 두 번 재산세 내는 걸로 끝나지만 상가투자는 다르다. 취득세는 4.6%로 주거용과 비교하면 최대 네 배다. 세금과는 별도로 주거용보다 두 배 정도는 높은 중개수수료율도 부담이다. 거기다 실물경제의 침체로 공실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 3분기(9월 30일 기준)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11.8%, 중대형 상가 11.5%, 소규모 상가 5.9%다. 오피스텔의 경우 10곳 중 한 곳은 비어있는 상황이라 목돈을 투자하고도 임대수익 없이 관리비만 물게 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11월 중순 공모청약 절차를 밟은 NH프라임리츠는 공실률이 1.9%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모리츠에 주목

공실에 따라 상가·오피스텔은 임대료도 하락할 수 있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공모리츠는 우량 자산 추가 편입을 통해 임대수익률이 더 좋은 자산을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시장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오피스 0.18%, 중대형 상가 0.18%, 소규모 상가 0.17%가 하락했다. 반면 NH프라임리츠 등은 향후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량 오피스를 더 편입해 규모를 불릴 것으로 보인다.

리츠 투자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있고 ETF나 펀드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공모주 청약이지만 최근 치솟은 경쟁률 때문에 원하는 물량을 다 받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롯데리츠와 NH프라임리츠의 뒤를 이어 이지스리츠가 빠르면 연내 상장될 전망이다. 이지스리츠는 제1호의 재간접 리츠다 보니 유관기관에서 보다 자세한 검토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상장 일정을 취소했다. 내년에는 홈플러스리츠도 다시 상장에 도전할 수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6조 원 자산규모의 공모리츠들이 출시될 예정인데 시총으로 따지면 3조 원대 규모의 리츠가 상장하는 것이라 향후 2~3년은 국내 상장리츠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최대 공적연금 캘퍼스가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리츠에 배분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도 부동산 투자방식으로 간접투자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리츠 투자 대상은 더욱 넓어진다. 미국 리츠의 경우 전 세계 리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리츠는 종목 수만 63개다.

미국 리츠에 투자할 때의 장점은 오피스, 리테일, 주택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배당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외 리츠 투자 방법

기존 종목 투자를 한다면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렘, 케이탑리츠, 모두투어리츠 등이 있다. 다만 기존 리츠의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 배당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신한알파리츠는 올 초엔 연 6%까지 가던 배당수익률은 최근 3%대로 떨어졌다. 이리츠코크렘 역시 최근 주가 수준에서 배당수익률은 4%로 연초 7%대에 비해서는 하락했다. 케이탑리츠의 경우는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병행하는데 합쳐서 연 4% 초반대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는 리츠 2종목과 맥쿼리인프라, 맵스리얼티를 총 60% 비중으로 넣고 나머지 40%는 고배당주를 편입한 ETF다. 현재 편입된 리츠는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렘 2종류지만 향후 공모리츠 추가 상장에 따라 리츠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리츠 투자 대상은 더욱 넓어진다. 미국 리츠의 경우 전 세계 리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리츠는 종목 수만 63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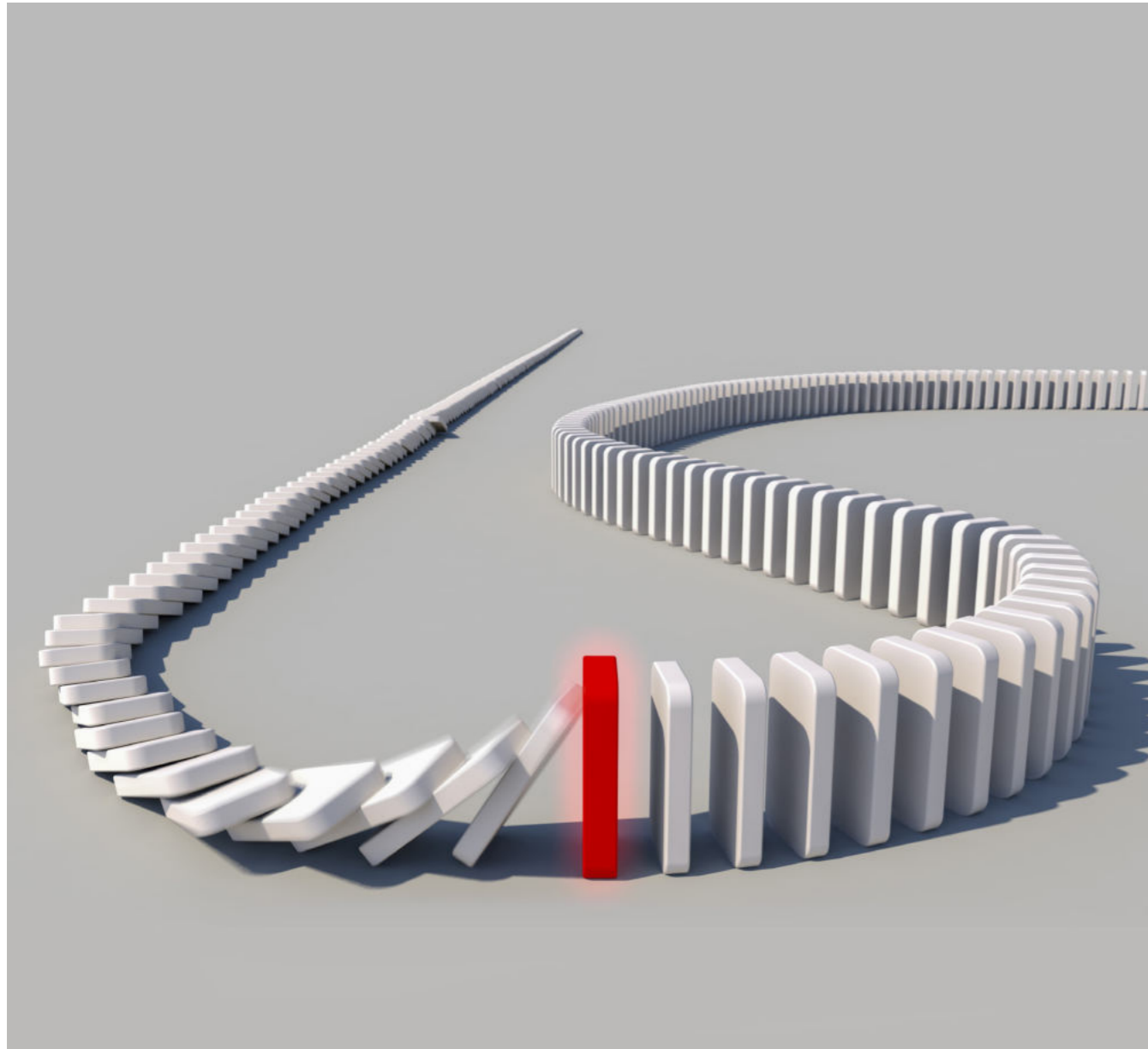
미국 리츠에 투자할 때의 장점은 오피스, 리테일, 주택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배당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시총 1위인 아메리칸 타워(티커명 AMT)로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최대 인프라 리츠다. 주요 글로벌 통신사에게 전파 설비 설치를 위한 통신 타워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특정 리츠가 아니라 분산투자를 원한다면 벵가드의 리츠 ETF(티커명 VNQ)에 투자하면 된다. 배당수익률은 3%대다. 일본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펀드를 통해서다. 국내에도 삼성 J-REITs 부동산투자신탁 펀드 등이 있는데 일본 리츠 주가 상승 등으로 1년 수익률이 27%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리츠도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뒀야 한다. 일단 올 초부터 주가 변동성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리츠가 주목받으며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일본 리츠의 경우 배당수익률은 3%대로 꾸준히 나왔지만 주가가 금융위기 때 30% 가까이 빠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부동산 자산도 경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WIN CLASS

채권시장, 이제 버블(거품)에 대비해야 한다

올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다.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은행은 무려 6년 5개월 만에 금리인상에 나서 기준금리가 연 1.5%가 됐고, 이어 2018년 11월 다시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는 연 1.75%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다.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그리고 10월 연이어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그 결과 기준금리는 다시 연 1.25%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인하로 인해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Words 정민재 경제 칼럼니스트



금리인하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채권시장

금리인하 결정에는 다 이유가 있다. 금리인상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다. 경제가 좋아야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 경기가 나빠지고 ‘디플레이션(Deflation, 경제 전반에 있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조짐이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논란이 한창이다. 소비, 생산, 투자 등에서 쉽게 바닥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기 전체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중국에선 경제 성장률 6%도 힘들어 5%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과정에서 올해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 러시가 나왔고, 세계에서 나 홀로 경제가 좋다는 미국까지도 연간 3번이나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런데, 유독 반사이익을 누렸던 분야가 있으니, 바로 채권(시장)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채권금리도 빠르게 떨어졌고, 자금이 채권으로만 몰리며 품귀현상이 났으며, 채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리는 더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다. 채권에 엄청난 버블(거품)이 쌓이면서 예상치 못한 시장 왜곡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린 채권의 거품 붕괴를 걱정해야 할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에 채권금리도 빠르게 떨어졌고, 자금이 채권으로만 몰리며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채권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금리는 더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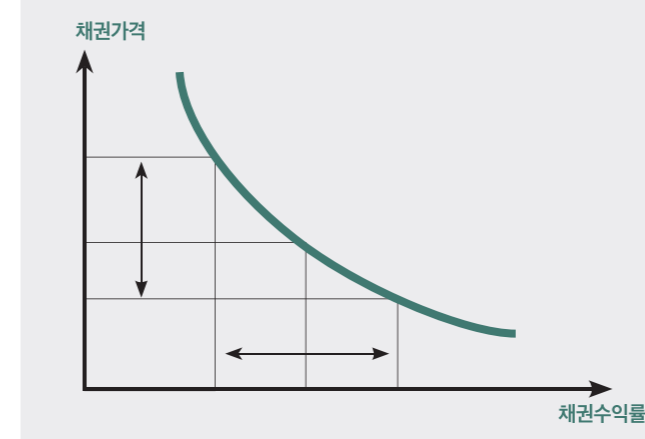
채권가격과 채권금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채권가격과 채권금리(채권수익률/ 채권이자율/ 시장금리)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듀레이션(Duration, 잔존만기)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데, 일단 채권가격과 채권금리의 ‘반비례’ 관계만 머릿속에 넣어 두면 좋을 것 같다. 복잡한 공식 대신에 편의상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면 몸값(가격)이 올라갈 텐데 너도 나도 채권을 사러 몰리면 발행자 입장에서 굳이 높은 이자(금리)를 줄 필요가 없기에 채권금리는 떨어진다”고 이해하자.

반면, 해당 채권이 위험해 보이면 인기는 떨어지고 투자자는 더 외면해 채권가격은 하락하는데, 발행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금리)로 관심을 끌 것이고 그 결과 채권금리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종종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정책금리)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금리(채권금리)를 혼동하곤 한다. 시장금리 결정에는 당연히 기준금리가 영향을 준다. 가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도 떨어지는 식이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종종 더 많이, 빠르게(기준금리를) 선반영하면서 왜곡이 나타나곤 한다. 가령, A 국가의 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당분간 계속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폭 이상으로 떨어진다. 금리인하 기조를 선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메커니즘도 함께 염두에 두면 채권시장의 거품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다.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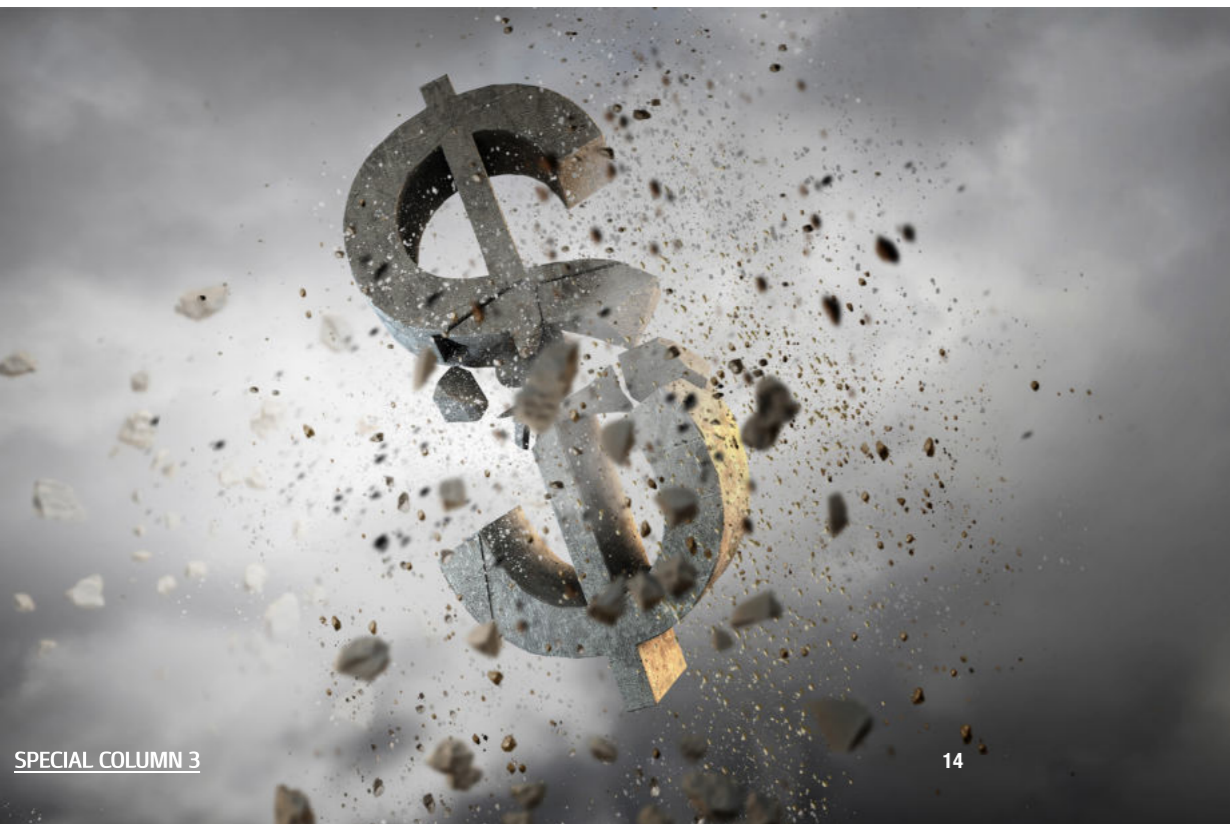
채권, 강세를 넘어 버블에 이르렀다

확실했던 '양적긴축'의 실패는 채권시장을 자극했고 결국 버블이 커졌다. 당초 미국뿐 아니라 유럽은 2010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풀었던 막대한 달러화와 유로화를 거둬들이겠다면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을 천명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 중앙은행(ECB)은 그간 자신들이 매입한 국채와 회사채를 시장에 내다 팔고, 시중에 풀린 달러화와 유로화를 곳간에 넣으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양적긴축'이란 말만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는 '발작'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물량을 시중에 내놓지 못할 것이란 확신이 서자, 채권의 몸값은 더 치솟았고, 이제 거품 영역에까지 도달하게 됐다. 2018년 중순 연 3%가 넘었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19년 연 1.5%까지 급락했다.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수익률도 1.4%대까지 급락했다.(앞서 설명했듯 이걸 그만큼 채권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채권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야기다.)

올가을 국내 금융시장에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한시중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안전판매 이슈였다. 연계된 기초자산은 바로 독일 10년 만기 국채금리였는데 가입 이후 약 6개월 후 만기 때까지 -0.2%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약 2%(연 환산 4%)의 수익을 준다는 구조였다. 결과는 잘 알려진 것처럼 독일 국채 금리는 급락해 장중 한때 -0.7%까지 떨어졌고, 원금을 다 날린 투자자도 나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물량을 시중에 내놓지 못할 것이란 확신이 서자, 채권의 몸값은 더 치솟았고, 이제 거품 영역에까지 도달하게 됐다.



며, 엄청난 불안전판매 이슈가 불거졌다. 그런데, 이때 독일 국채금리가 -0.7%라는 건 무슨 뜻일까. 피 같은 내 돈을 투자해 채권을 사주는데 이자를 받기는커녕 고맙다고 0.7%의 수수료를 독일에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글로벌 유동성 입장에서 세상이 뒤숭숭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 '안전자산'을 찾아서 머물고 싶었고 결국엔 미 국채, 독일 국채, 금 등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거 몰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국채의 몸값은 높아져만 갔고 무려 -0.7%라는 심각한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왔다. 결론적으로 독일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이런 현상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린 채권의 거품을 감지해야 한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통화든 부동산이든 이런 투자자산의 거래는 자신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받아줄 주체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이뤄진다. 10년 만기 독일 국채금리가 -0.5%, -0.6%인데도 독일 국채 수요가 있는 건 향후 더 낮은 금리(높은 가격)에 자신의 물량을 넘길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어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확신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왜 오르나

지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사이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오히려 최대 0.28%포인트(혼합형 기준) 오르는 기현상이 나왔다. 바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5년 만기 금융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왜 시장금리(채권금리)는 오히려 올랐는가. 그간 떨어진 채권금리(오른 채권가격)가 과도하다고 각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도 연내 금리인하가 없다는 뉘앙스를 보



채권시장의 거품 붕괴는 부동산에 더 치명적이다. 바로 부채 때문이다. 가계부채 1,600조 원 시대에 금리가 오르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리금을 갚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자 이제 채권금리의 급반등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정책이 끝났다고 볼 수 없고, 11월 이후 나오고 있는 채권금리 상승이 추세적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채권 버블이 터지며 시장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면 주식, 부동산에 함께 타격을 준다. 가령 2019년 세계 증시를 버티게 했던 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었다.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은 그 돈으로 스스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를 많이 발행했던 기업들은 상당한 이자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간 사놓았던 자사주를 팔아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 물량이 대거 쏟아져 테고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의 거품 붕괴는 부동산에 더 치명적이다. 바로 부채 때문이다. 가계부채 1,600조 원 시대에 금리가 오르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리금을 갚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리가 더 빨리, 많이 오르면 부채의 원천인 부동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외신에서도 이제 '채권 거품 붕괴'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다. 조금 복잡한 구조이긴 한데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보자. "그간 과도하게 뜨거웠던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면 채권가격은 하락하면서 채권금리(시장금리)는 오르고, 이 결과 기업과 가계의 부채를 자극해 주식과 부동산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반드시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 WIN CLASS



지금은 경건한 마음으로 내년의 투자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2018년 1월 정점을 찍었던
국내 증시는 올 초 급락했다.
대내외 악재가 연일 국내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반등의 기회는 있을까?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할까?
국내 증시를 분석하고
전망해본다.

Words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



국내 증시의 급락, 반등 가능성?

2018년 1월 국내 증시는 모두 정점을 찍었다. 코스피 지수 2,600pt, 코스닥 지수도 930pt까지 올랐다. 당시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개선이 주효했고, 코스닥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무르익던 시기였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준 기간이었다.

이후 반도체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바이오 기업들의 잇따른 임상 실패로 자금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주식시장은 하락세에 진입했다. 고점을 찍을 때 미리 하락장을 염두해야 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확대하며 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국내 증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상승장에서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고점 부근에서 투자를 확대한 투자자들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식투자에 대한 자신감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올 초 국내 증시는 지난해 급락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과 1월 효과에 힘입어 상승하는 듯했다. '미 워도 다시 한번' 투자자들은 지난해 손실을 만회하고자 또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국내 증시는 5월을 고점으로 하락세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올 8월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악몽과 같은 시기였다. 코스피는 1,890pt, 코스닥은 540pt까지 빠졌다. 2018년 1월 고점에



비하면 코스피 지수는 -27%, 코스닥 지수는 -42%가량이 하락한 수치다. 이는 코스닥을 위주로 매매하는 개인투자자의 주식계좌 대부분이 반토막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에 주식 투자를 접었어야 했는데 하는 푸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래도 주식시장은 잘 돌아간다. 하락은 또 다른 이들에겐 기회다. 지난 5월 증시가 저점을 형성함에도 반등의 가능성을 본 것은 다름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또 다시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1,900pt, 코스닥 550pt 수준에는 안전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저점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내년 국내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긴 어렵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저효과로 실적개선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팽배하고, 바이오 업계의 임상 실패, 회계 부정, 피해 집단소송 등 이슈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총선, 미중 간의 무역분쟁, 북미 간의 실무협상, 트럼프 재선 등 시장 외적인 이벤트까지 산적해 막연한 환상보다는 구체적인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도 유망 섹터 중
하나가 바로
폴더블폰이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020년 2~3종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 리서치알음은 국내 유일의 독립 리서치 기관으로 2018년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베스트 리포트 특별상, 2019년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리서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형 OLED패널 투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OLED TV를
생산하는 업체의 수는
총 17개에 달하지만,
대형 OLED 패널
공급업체는 전 세계에서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



주목해야할 주식 종목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종목의 실적이다. 우선은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산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당 리서치센터에서 제시하는 내년도 유망 섹터는 ① 2차전지 ② 폴더블폰 ③ 대형 디스플레이 ④ 환경 등이다. 모두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누구라도 예상이 가능하다. 앞으로 도로 위의 차들 중에 파란색 번호판이 많이 보일 것이고, 주변에 폴더블폰 사용자가 더 자주 눈에 될 것이며, 대형 OLED TV 광고가 엄청 쏟아질 것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경보가 울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국내 증시 유망 섹터를 하나씩 살펴보자. 우리는 국내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을 예상한다. 그동안 화재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었던 ESS투자 재개와 전기차 동차 보급률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방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국내 배터리 3사(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도 대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중대형 배터리 합산 생산능력은 2019년 95GWh→2023년 400GWh로 CAGR +43% 증가할 전망이다. 2차전지 업체의 증설 계획에 따라 향후3~5년간 관련 소재, 장비 업체들에 수혜 가능성이 높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폴더블폰도 기대해 볼 만한 분야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2020년 2~3종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전망치를 2020년 500만대, 2021년 1,000만 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16억 대 수준과 비교하면 0.3%에 불과 하지만 신기술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비춰봤을 때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 시장이라고 해도 폴더블 스마트폰이 고가 부품이 다량 탑재되는 특성상 출고가 200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LCD 공급과잉을 초래한 중국 업체들이 속속 OLED TV 진출을 선언하면서 대형 OLED패널 투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OLED TV를 생산하는 업체의 수는 총 17개에 달하지만, 대형 OLED 패널 공급업체는 전 세계에서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중화권 패널 업체들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QDOLED 관련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에 13조 원을 투자한다. 올 4분기부터 L8-1(LCD) 라인을 철거하고 Q1(QDOLED) 라인으로 전환을 시작한다. 중화권 업체도 OLED 굴기에 나선다. 중소형에서 대



형에 이르기까지 BOE(7조 8,000억 원), HKC(5조 원), 비전옥스(1조 9,000억 원) 등 중국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만 15조 원에 달한다.

마지막은 환경과 관련된 분야다.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면서 공기 질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에 특별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0조 원이 투입된다. 우선 1차원적인 수혜 품목인 공기청정기, 마스크, 인공눈물 등이 매년 미세먼지 시즌에 부각된다. 하지만 당 리서치센터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택배 차량의 전기화물차 전환, 디젤과 벙커C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연료 사용 비중 확대, IMO 2020(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량 규제)으로 인한 LNG선 발주량 증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공하는 투자자의 자세는 단기 성적에 조금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투자원칙을 묵묵히 지켜가는 것이다. 지금은 내년도 투자전략을 확실히 세워야 할 시기다. 큰 자산을 투자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부단히 고민해야 한다. 내가 성장을 확신하고, 잘 아는 그런 시장에 오랜 시간 투자하라. 그리고 그중에서 싼 업체를 선택하라.

주식투자는 단기에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있을 미래를 예측하는 일 또한 어렵다. 하지만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을 기억하자. WIN CLASS



삼성전자를 비롯한 중화권 패널 업체들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QDOLED 관련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에 13조 원을 투자한다.



미리 대비하면 돈이 되는 세테크

부자 중에 세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세금은 현금 흐름 관리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2020년부터 바뀌는 세금 정책을 미리 체크해 스마트하게 세테크하자.

Words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금융자산 투자 부분

금융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양도 손익통산,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50세 이상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장, 주식 장외거래세율 인하 등에 대해 알아보자.

①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강화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과세표준 3억 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의 종목 보유금액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이 2020년 이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2021년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제 한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다.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 :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 25%(2020년 1월 1일 이후)

②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통산

현재 세법은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각각 통산한다. 따라서 해외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내고, 국내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 해외의 투자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투자이익과 손실을 상호 통산하도록 개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각각에 대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국내/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③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람은 내년부터 확대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알아둬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만 60세 이상 부모가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는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30억 원까지는 세율이 10%로



2020년부터 바뀌는 세법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강화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손익통산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기존의 증여세 세율보다는 매우 낮은 세율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이 추가되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④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동안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특히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과 개인의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해서 비과세되었다.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개인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⑤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 연금저축의 300~4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이 공제되었는데 내년부터는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가 추가로 세액공제된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⑥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의 납입지원을 확대한다. 연금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1억 2,000만 원) 소득금액 구간의 한도가 400(700)만 원에서 600(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000만 원 이하(5,5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15%
1억 원 이하(1억 2,000만 원)		
1억 원 초과(1억 2,000만 원)	300만 원(700만 원)	12%

부동산 및 상속 투자 부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과세 합리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임원에 대한 가능 여부 등 세부적인 규정은 법률의 통과 및 시행령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주택에 포함된 토지는 주택의 일부로 본다. 하지만 주택이 비과세 대상일 경우 무한정 토지를 주택의 일부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의 세법에서는 지역별로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의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도시지역 중 수도권은 주택 면적의 3배까지만 주택의 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③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9억 원이 초과된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에 근린 생활시설 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 전체(주택+주택 외)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주택의 면적만 비과세로 적용되고 주택 이외의 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구분	2021년까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주택 면적 ≤ 주택 외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 > 주택 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④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간 연장

등록임대사업자 중 소형주택(85㎡·6억 원 이하)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내인 경우에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임대기간에 따라 4년(8년) 이상의 경우 30%(75%)의 세액감면을 해주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임대기간 4년(8년) 이상에 대해 20%(50%)으로 세액감면 폭이 축소된다.

이상과 같이 매년 세법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개정이 되기도 한다. 세법의 개정방향을 보면 정책의 중점이 보이기도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세법의 개선사항은 2019년 7월 25일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말 국회에서 최종 법률 통과 시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다. WIN CLASS



한남동WM센터
한 방향으로 모두가 함께하기에
빛나는 경쟁력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남동WM센터는 항상 좋은 에너지가 넘친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금융전문가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고객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양상불을 이뤄 남다른 경쟁력으로 빛나는 곳.
한마음 한뜻으로 최고의 WM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남동WM센터를 찾았다.

Words 한울 Photographs 고인순



정윤주
대리

전민정
팀장

최철호
부센터장

김정업
대리

서지혜
대리

홍진 대리

안호균 센터장

박미선
부센터장

윤수진
대리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시간

한남동은 '용산의 명당'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고급 아파트를 비롯하여 하얏트호텔 인근이라는 지역적 특징까지 갖고 있는 부촌이다. 한남동WM센터는 2012년 3월 이곳 한남동에 PB센터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2015년 3월 WM센터 1호점으로 전환했다. 개점 7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전 직원이 개점 초기의 활력과 초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곳, 덕분에 한남동WM센터는 개점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남동WM센터는 '최고의 WM센터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하나가 되어 달려왔다. 고객에게 편안하게 다가서는 안호균 센터장을 위시하여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금융전문가 최철호·박미선 부센터장,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성장을 일군 주인공들. 특히 자가 건물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보유한 센터와 완벽한 주차장 시설은 고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한남동WM센터는 CEO, 은퇴자산가, 정·재계 인사, 연예인 등의 고객자산가가 고객의 주를 이룬다. 프라이빗한 고객 특성상 초기에는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한남동WM센터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영업성과를 창출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성과도 당연히 따를 거라 믿었다. 마침내 2~3년 후부터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안호균 센터장은 먼저 박미선·최철호 부센터장에게 공을 돌렸다. “두 명의 부센터장이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덕분에 고객과의 신뢰를 두텁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직원들 또한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편이지만 일부 고객의 경우는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등 글로벌한 자산 배분에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 보다 폭넓은 자산을 취급하는 시스템이나 상품 등 다양한 경로를 가진 WM센터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3

“나와 IBK투자증권 한남동센터 직원들과 함께 불링을 치고 치킨 파티를 했어요. 최철호 부센터장이 연속으로 스트라이크를 쳐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아 치킨과 맥주 값을 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발라드가수 지망생이라는 걸 알고 업무 마감 후 객장에서 즉석 콘서트를 열었어요. 이러한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마음을 열고 소통합니다.”

최초의 1조 클럽 센터가 되기 위해 하나가 되다

영업 환경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한남동WM센터는 내일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자산 1조 클럽에 들어가는 최초의 센터가 되는 것이 한남동WM센터의 목표다.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꼭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WM센터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 고급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부동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고객니즈가 충족되면 저희 센터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 MGM마케팅을 통한 신규고객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호균 센터장을 비롯한 한남동WM센터 전 직원들은 끊임 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고 튼튼하듯이 성장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2019년, 뜨겁게, 쉬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온 한남동WM센터가 앞으로 또 어떠한 발전을 이룰지 이들의 행보를 주목해볼 일이다. WIN CLASS



04

채우고 더하며 실력을 쌓아가는 센터

성장의 과정에서는 힘든 날도 있었다. PB센터에서 WM센터로 전환하면서 순수한 예금과 펀드 판매수의 대비 운영비용 지출이 커 수익 달성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하지만 고객 만족과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 선임대 후분양 조건에 따라 분양을 포기한 입주인이 대대적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면서 거래고객의 이탈에 따라 영업 상황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남동WM센터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주 후에도 거래를 지속하는 고객도 있었습니다만, 고객 유출로 인한 어려움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MGM(Members Get Members) 마케팅을 통해 신규 고객 발굴에 노력했습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성과란 없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구성원들이 있었기에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고자 하는 의지니까요.”

안호균 센터장은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자신의 일에 즐거움을 느껴야 최고의 성과로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직원이 즐겁고 열정적이면 그 에너지가 고객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 마련이다. “올 상반기에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당행 직원뿐만 아



01

- 01 — 한남동WM센터를 이끌고 있는 안호균 센터장
- 02 — 객장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다
- 03 — 한남동WM센터는 2015년 3월 문을 연 WM센터 1호점이다
- 04 —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한남동WM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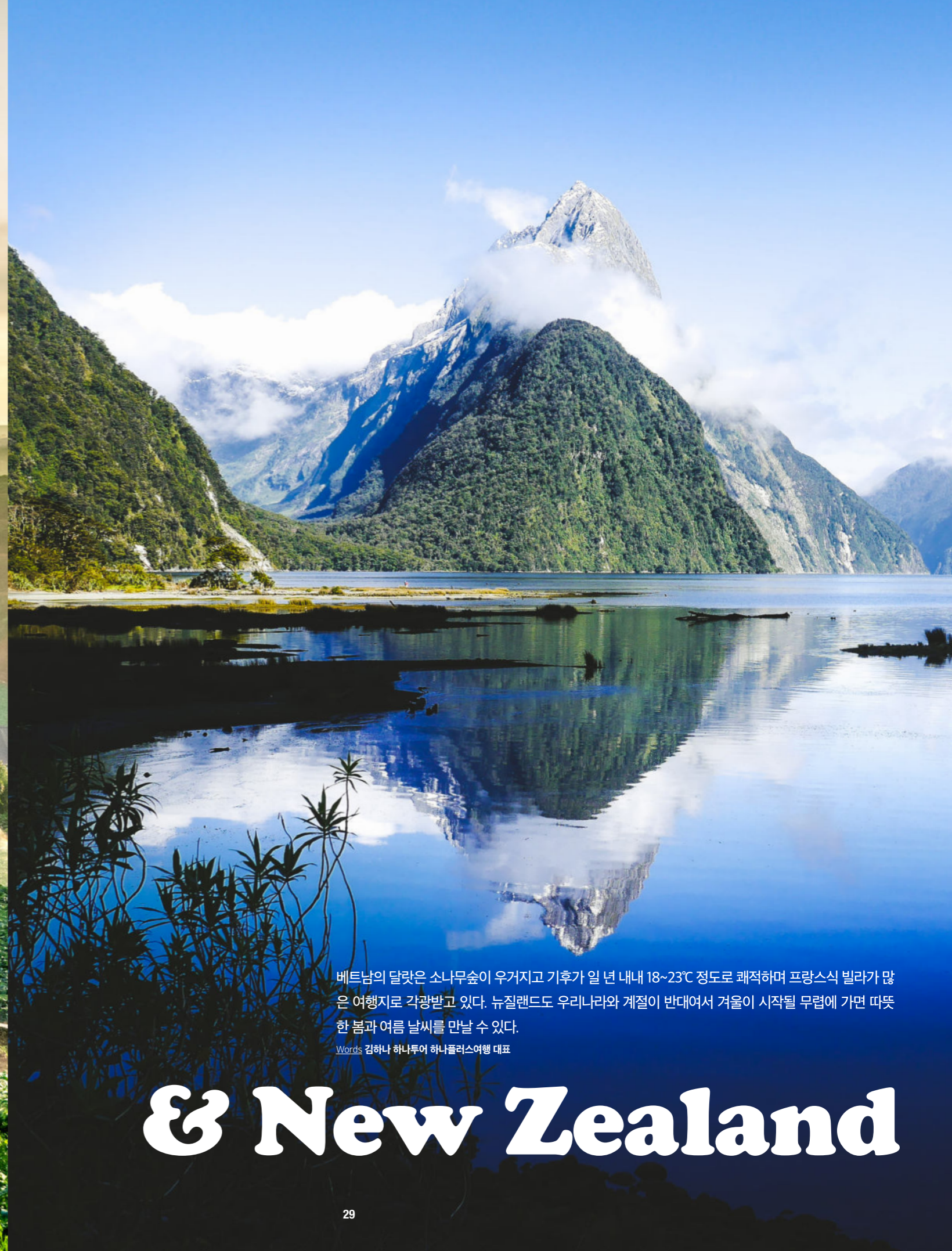


02

추위가 없는 곳에서의 겨울 휴가
베트남 달랏 & 뉴질랜드



Vietnam Da Lat



베트남의 달랏은 소나무숲이 우거지고 기후가 일 년 내내 18~23℃ 정도로 쾌적하며 프랑스식 빌라가 많은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뉴질랜드도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여서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가면 따뜻한 봄과 여름 날씨를 만날 수 있다.

Words 김하나 하나투어 하나플러스여행 대표

& New Zealand

수려한 자연이 반기는 감각의 도시, 달랏



달랏에 대한 기록은 제국주의 열강이 아시아를 침범하기 시작한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했을 때, 프랑스 총독은 달랏에 기차역을 세우고 별장을 짓고 골프장까지 만들어 휴양도시로 개발했다. 베트남의 마지막 왕인 바오다이도 이곳에 3채의 별장을 짓고 여름을 보냈다. 이때 남겨진 건물과 시설들은 지금 리조트와 관광지로서 사용되고 있다.

달랏 시내로 향하는 길가엔 붉은 봉선화와 따뜻한 파란색의 수국이 줄지어 피어 있다. 달랏에는 1년 내내 수국이 핀다. 땅이 비옥해서 농작물도 꽃도 잘 자란다. 또한, 품질도 좋아서 베트남 사람들도 달랏에서 나는 채소와 꽃, 커피는 믿고 산다.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와 매우 비슷해서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도 유명하다.

다양한 액티비티와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프렌폭포

지대가 높고 산과 계곡이 많은 달랏에는 크고 작은 폭포가 여러 개 있다. 그중에서도 다땀라는 액티비티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루지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 폭포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굽직한 물줄기가 바위 사이로 흐르다가 아래로 세차게 내리 쏘인다.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용을 보여준다. 높이 9m 정도의 아담한 프렌폭포 주변에서



- 01 — 폭포 주변 돌들이 코끼리 피부처럼 거칠어서 코끼리폭포가 되었다
- 02 — 달랏 시내에서 6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다땀라폭포
- 03 — 쑤언훙엉 호수(Xuan Huong Lake) 주변을 따라 공원과 카페가 많아 여유롭게 커피 한 잔하며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 04 —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랑비양(Lang Biang)산 채소밭



는 코끼리를 타고 한가로운 시골 풍경을 감상하거나 보트를 타고 시원한 물길 위를 미끄러지듯 내려가 볼 수 있다.

커피 향 가득한 로맨틱 시티 꾸란마을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소수민족인 꺼호족의 터전, 꾸란마을이다. 프랑스인에 의해 파괴되고 잊혔다가 2011년에야 민속촌으로 복원되어 부족의 생활상을 전시하고 있다. 꾸란마을 중앙부로 들어가면 너른 잔디밭이 딸린 작은 호수가 나타나고 그 주위를 전통 가옥이 둘러싸고 있다. 기둥을 세워서 집의 바닥을 1m 이상 띄워서 지은 것이 특징이다.

도시 외곽으로 가면 다시 지프를 타고 올라가야 감상할 수 있는 랑비양산이 있다. 정상의 해발고도는 약 2,200m. 구불거리는 산길을 차로 20분은 더 달려야 하는 곳이다. 달랏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데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 비견될 만한 스토리로 랑비양산 정상은 관광객들의 포토 스팟으로 인기다.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멜린 커피 농장도 빼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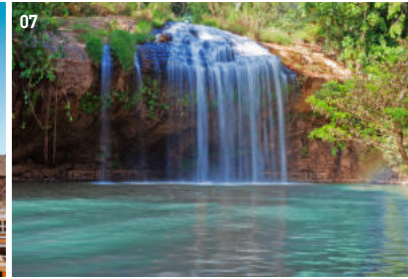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수출국이다. 베트남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라비카보다 맛이 쓰고 카페인이 강한 로부스타 품종을 재배하지만 지대가 높은 달랏에서는 아라비카 품종도 잘 자란다. 단내가 감돌게 볶은 원두로 주문한 뒤 농장이 흰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앉으면 붉은 땅에서 자란 푸른 나무, 그 위로 더 파란 하늘이 나이트처럼 겹겹이 펼쳐지고 햇빛이 닿아 잔잔한 금빛 물결을 보며 갓 내린 커피를 한 입 머금으면 달랏에서의 오감이 완성되는 향기로운 순간을 맞



이할 수 있다.

이렇게 달랏은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찌는듯한 더위와 습한 날씨가 특징인 베트남의 어느 도시와 달리 고도가 높아 사시사철 선선함과 온화한 날씨를 모두 갖추고 있는 달랏. 겨울철 특별한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베트남의 새로운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달랏은 어떨까.

- 05 — 달랏 지역은 베트남 커피 성지로 불린다
- 06 —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랏 기차역
- 07 —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폭포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프렌폭포
- 08 — 달랏은 수국으로 유명하다





뉴질랜드 청정 여름아, 연말연시를 부탁해



뉴질랜드는 크게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는데, 북섬에는 많은 여행객이 선호하는 뉴질랜드의 관문 '오클랜드'가 있다. 북섬은 자연의 아름다움, 도회적 분위기, 마오리족의 독특한 문화, 온화한 날씨 등 세계적인 여행지로서의 필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남섬은 높은 산들과 아름다운 숲, 맑은 강과 그림 같은 호수들이 있는 대자연 그 자체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정도 날아가면 때 묻지 않은 대자연의 아름다움, 원주민 마오리족의 장대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지 중 한 곳을 만날 수 있다.

높은 산들과 아름다운 숲, 맑은 강과 그림 같은 호수는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감동과 즐거움이다. 게다가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12월의 뉴질랜드는 야외 활동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평균기온 25°C 정도의 초여름이다.

기존에는 오클랜드를 가려면 현지 국내선을 두 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올해 크라이스트처치행 비행편이 추가되면서 국내선 탑승 횟수가 단 1회로 줄었다.

- 01 — 경치가 여왕의 마을에 적합할 만큼 아름답다고 해서 퀸스타운이라 불린다
- 02 — 고요하고 아름다운 호수인 퀸스타운의 와카티푸
- 03 — 멀리 떨어진 가족도 한 곳에 모이는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
- 04 — 와이토모 동굴은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는 것처럼 환상적이다
- 05 —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안에 있는 타스만 빙하



피오르의 신비, 밀포드 사운드

뉴질랜드 남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퀸스타운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오르 밀포드 사운드다. 피오르는 빙식곡이 침수해 만들어진 깊고 좁은 후미를 말하는데 천지창조의 풍경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 여행자의 발길을 이끈다. 밀포드 사운드 역시 압도적인 원시 대자연을 품은 피오르로 마오리어로는 '한 마리의 피오피오새'라는 뜻의 '피오피오타히'라고 부른다.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은 바다에서 솟은 거대한 봉우리로 둘러싸인 이곳을 보고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 그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개척한 지역이 되었다. 태초의 풍경 그대로인 듯한 짙은 바다, 바다를 뚫고 나온 산만한 봉우리, 공기청정기로도 흉내 낼 수 없는 맑은 공기, 주위를 둘러싼 뾰족한 숲이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밀포드 사운드. 보는 순간 누구라도 탄성을 지르는 이 압도적인 대자연을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 투어'로 알차게 누릴 수 있다.

세계 8대 불가사의, 와이토모 동굴

마오리어로 '물과 동물'을 의미하는 와이토모 동굴은 북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동굴 탐험지다. 1887년 영국의 탐험가 프레드와 마오리 추장이

발견했으며, 석순과鐘유석을 관찰할 수 있는 200만 년 된 종유굴이라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의미적이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신비로운 동굴로 종유석과 석순이 숲을 이루듯 늘어서 있으며, 반딧불이 유충의 영롱한 불빛이 천장을 뒤덮고 있다. 지하 강물을 따라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반짝이는 동굴의 풍경 속에서 먼 은하계를 상상하는 특별하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순수한 감동, 타스만 빙하 투어

타스만 빙하는 길이 29km, 폭 4km, 깊이 600m에 달하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빙하다. 1년 중 빙하기인 10월에서 4월 정도까지만 빙하가 녹아 생긴 호수를 향해하며 태초의 원시 대자연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빙하 투어'가 허락된다.

한여름에도 하얀 눈이 남아 있는 아찔한 '마운트쿡(3,754m)'을 배경 삼아 거대한 빙하와 거기서 떨어져 나온 빙산은 형언하기 힘든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곳저곳 뚫고 다니는 유빙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거나 500년은 족히 넘은 빙산 조각을 떼어 내 시음해 볼 수도 있다.

와카티푸 호수 옆 모험의 수도, 퀸스타운

퀸스타운은 본디 마오리족의 고향으로 1850년대에 이주한 유럽인이 개발해 도시로 거듭났다. 길이가 무려 77km에 달하는 와카티푸 호수는 그 배경이 되는 높은 산, 그림 같은 마을 풍경과 함께 여행자로 하여금 최단 시간 내에 이 도시와 사랑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퀸스타운의 가장 큰 매력은 한 폭의 유화 같은 경치를 바라보며 즐기는 다채로운 액티비티다. 겨울엔 전 세계 스키어가 몰려오고, 여름엔 '모험의 수도'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스릴 만점 액티비티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거린다.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제트보트 등 국내에선 경험하기 힘든 익스트림 스포츠도 퀸스타운에선 일상이다.

뉴질랜드의 서머 크리스마스 축제

1934년부터 시작된 '파머스 산타 퍼레이드 축제'는 여러 지역 단체, 각 나라의 이민자 대표, 초·중·고등학교 팀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개성 넘치는 코스튬 의상을 입고 1시간가량 오클랜드 중심가를 행진하며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알리는데, 마지막으로 산타클로스가 등장해 관광객들에게 크리스마스 무드를 한껏 고조시킨다.

또 다른 축제는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인 더 파크'로 남섬과 북섬의 가장 큰 공원에서 시차를 두고 열리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축제다. 뉴질랜드 최고의 가수, 댄서, 밴드 등이 참여해 야외 공연을 펼치며 크리스마스 시즌의 시작을 뜨거운 열기로 채운다. 남섬에선 크라이스트 처치 노스 해클리 공원(11월 30일)에서, 북섬에선 오클랜드 도메인 공원(12월 14일)에서 열리며 올해로 26회째를 맞는다.

탁 트인 청정자연과 우리나라와는 반대의 계절을 만날 수 있는 뉴질랜드로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WIN CLASS



Watch the Watch

수많은 시계 브랜드 중에 전설로 꼽히는 브랜드가 있다.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가 그것. 최상의 재료와 최고 수준의 작업 기준, 엄격한 품질 관리로 시계 미학의 극치를 보여준 시계 브랜드의 명가^{名家}.

Words 박영화 Reference Book <시계이야기>(그책)



파텍 필립

시계 명가 중에서 '전설'이라 불리는 파텍 필립. 파텍 필립의 역사는 1839년 앙투안 드 파텍이 시계장인 프랑수와 차펙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파텍 차벡(Patek, Czapek & Cie.)이라는 상회를 세우면서 시작했다. 이후 파텍은 장 아드리안 필립을 만나면서 파텍 필립(Patek Philippe & Cie., 1851년)으로 회사명을 다시 한번 변경했다.

장 아드리안 필립은 1842년 시계의 용두로 시간을 조정하는 스템와인딩(Stem-Winding)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계 장인이었다. 당시 회중시계는 태엽을 감는 부속품인 열쇠가 필요했는데, 이러한 불편을 없애버린 것이다. 필립의 천재성을 알아본 파텍은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고, 필립이 받아들였다. 이후 파텍 필립은 1932년 스텐 형제가 인수해 현재까지 4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파텍 필립이 지금까지 생산한 시계 중 익셉셔널(Exceptional)이라고 분류한 시계가 2개 있다. 2000년 선보인 '스타 칼리버 2000'과 2001년에 선보인 '5002P'이다. 스타 칼리버 2000은 6개의 특허 기술을 탑재했다. 5002P는 스타 칼리버 2000 회중시계를 손목시계로 구현한 것이다.

전통 제조방식을 고수하며 소량의 시계만 정성스레 제작하는 파텍 필립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차이코프스키, 록펠러, 아인슈타인 등 저명인사의 시계로도 유명하다.



Patek Philippe

바쉐론 콘스탄틴

파텍 필립이 시계의 제왕으로 부상하기 이전에 오랜 시간 왕좌에 있었던 바쉐론 콘스탄틴. 1755년 장 마크 바쉐론이 창업한 가장 역사가 긴 시계 브랜드다. 바쉐론의 두 아들이 대를 이어 회사를 운영해오다 1819년 프랑수아 콘스탄틴이 합류하면서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1839년 바쉐론 콘스탄틴의 엔지니어는 획기적인 기계 팬토그래프를 발명했는데, 교체 가능한 무브먼트 부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로 일일이 수제작 하는 수고를 덜어주었다. 시계를 살펴보면 상징적인 십자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1880년에 상표 등록한 말테 크로사다. 다이얼의 패턴, 스트랩, 버클 등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대표 시계는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크로노그래프'. 정체된 느낌의 베젤과 주변이 도톰도톰하게 새겨진 사파이어 크리스탈 후면 등 바쉐론 콘스탄틴의 아름다움이 이 제품 라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을 착용했던 유명 인사로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 교황 비오 11세, 해리 트루먼 대통령, 순종 등이 있다.

*무브먼트 : 시계를 움직이는 부품 집합체



Vacheron Constantin

오데마 피게

제네바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작은 호수가 있는 주 계곡(la Vallée de Joux)이 나오는데 그곳은 시계 제작자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스위스 사람들은 시계 계곡(Watch Valley)이라 부른다. 바로 그 주 계곡 초입 작은 마을 르 브라쉬스에 오데마 피게가 있다. 시계 장인의 후손 쥘 루이 오데마가 에드워드 오귀스트 피게와 의기투합해 1875년 오데마 피게를 창립했다.

1891년 당시 제일 작은 미닛 리피터, 1925년 1.32mm 초박형 회중시계 무브먼트, 1970년 3.05mm로 당시 가장 얇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등 기록적인 시계들이 많지만, '오데마 피게' 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1972년 출시한 '로얄 오크(Royal Oak)' 시리즈다. 로얄 오크는 제럴드 젠타가 디자인한 시계로 잠수부들이 정비 작업을 하면서 착용한 헬멧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고 한다. 팔각형의 스틸 소재 베젤과 화이트골드 소재의 스크루가 특징인 로얄 오크는 다이얼 또한 특이한데 타피스리 패턴으로 '와플 다이얼'이라고도 불렸다. 지금은 흔한 스타일이지만 출시 당시에는 최초의 럭셔리 스포츠 시계로 주목받았다. WIN CLASS



Audemars Piguet



01



02

- 01 — 십장생도. 2019(제12회 대한민국 민화 공모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작품)
- 02 — 까치와호랑이내장문으로.입선.2018
- 03 — 해바라기



03

변하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

민화 앞에서는 유행도, 속도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예전의 모습을 묵묵히 담아내는 끈기만이 필요할 뿐이다. 어쩌면 그 단순함에서 우리는 위로와 치유를 받는다. 장윤영 작가는 자신이 민화를 그리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그린다.

Words 백해린 Artist 장윤영 Photographs 고인순

장윤영 민화 작가



방향 끝에 찾은 안정, 민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도전을 하고, 또 무수한 변화를 만난다. 변화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아마 또 다른 도전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신을 '민화 새내기'라 칭하는 장윤영 작가는 원래 게임 회사에서 배경 콘셉트 아트와 UI 디자인을 맡던 디자이너였다. 자신이 원해서 택한 길이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에 어려움으로 지쳐있던 차나, 작가의 삶에 민화가 들어왔다.

“게임회사는 보통 프로젝트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가 잦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사업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무산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장윤영 작가는 게임 회사 특유의 업무 과정과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통한 작업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런 작가에게 딱 맞는 예술이 등장했으니, 바로 민화다. 프로젝트 콘셉트에 맞는 자료를 찾다가 접하게 된 민화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고.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배워오다가 대한민국 민화 공모대전에서 입선을 타게 된 것을 계기로 정식으로 민화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민화는 오히려 전통을 지키는 쪽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매력을 느꼈죠.”

누군가는 민화를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장윤영 작가는 그 고리타분함이 마음에 들었다. 밑 작업부터 시작해서 손이 많이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성을 쏟는 행위로 느껴졌기 때문. 그렇게 해서 탄생한 민화는 작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고증하다

장윤영 작가는 최근 제12회 대한민국 민화 공모대전에서 '십장생도'라는 작품으로 특선을 수상했다. 십장생도는 궁중 장식화로 도화서의 실력이 출중한 화원들이 그렸던 그림이다.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제작되어 상류층에서부터 민간까지 인기가 많았던 작품. “궁중 장식화 국가계승자 1호인 이문성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사사를 받았어요. 사사를 받는다는 건 교수님의 작업 방식이라든지 전통성을 이어받는 개념이에요. 궁중 장식화의 특성상 고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색감을 썼는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그 방식 그대로 재현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미술관, 서화전의 그림이나 문화재를 통해 영감을 받는다는 장윤영 작가는 점점 그려보고 싶은 것들이 늘어난다. 현대 민화를 그릴 때는 일상 속에서도 영감을 얻는다. 일상을 살다가 자신만의 웃음 포인트가 있으면 작품에 함께 녹여내는 편이다. 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미지를 보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도 하지만, 장윤영 작가는 전통을 우선시한다. 민화는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살짝 더하는 정도다.

“회사를 쉬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어딜 가도 한국의 민화 같은 그림이 없어요. 다른 예술과는 달리 정말 독창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전통성을 지닌 민화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04



05



06



08

04 — 동백미인도. 2019(2019 김삿갓문화제 민화 공모에서 입선한 작품)
 05 — 모란도
 06 — 어느猫
 07 — 돈화원. 2019협회전
 08 — 장윤영 작가

민화를 통해 전하고 싶은 행복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얻은 행복을 현대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민화는 그녀의 삶에 위로로 다가왔기 때문. 작가가 자신의 닉네임을 YOYO(요요, 曜曜)라고 지은 것도 그 이유다. 요요는 ‘나는 빛이 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그림은 빛이 나면 좋겠다. 또한,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의미라고.

그녀는 이번 분기부터 ‘러블리 페이퍼’라는 사회 공헌 기업에서 활동하게 된다. 페지를 줍는 어르신에게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페지를 사들이고 그것을 재활용해 캔버스를 만든다. 작가가 할 일은 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림은 일정 금액에 판매되어 또 노인 복지에 쓰이게 된다.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민화를 그리면서 정신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걸 다른 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제 능력을 좋은 일에 쓰고 싶기도 했고요. 협약을 맺게 된 민화 작가는 제가 최초예요.”

작가가 민화의 깊이를 제대로 알게 되는 데까지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재학 중인 경희대 교육대학원 관화/민화 교육자 과정을 이수해 민화 입문자들에게 양질의 전통 민화 교육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그림에 소질이 있던 어머니는 화가를 꿈꿨지만, 당시 가족의 반대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였는지, 어머니는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녀는 첫 번째 과제였던 민화 교육의 일환 중 하나로 기회가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보고 싶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조교 생활, 병풍 단체전과 협회 회원전, 개인전 준비 등 바쁜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화를 통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꿈이 될 행복을 전달하다 보면, 작가로서 더 의미 있는 삶을 그려나갈 수 있으리라. 아직은 대중들에게 한 발자국 떨어진 민화지만, 장윤영 작가는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지켜나갈 것이다. WIN CLASS

82년생 김지영 그래도 희망은 계속된다



BOOK & MOVIE

<82년생 김지영>은 소설적 구성으로 보면 지극히 허술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일지에 가까운 형식이 그렇고, 편년체인 시간의 순서대로 한 여성의 삶을 기록해 나간 것도 그렇고, 당사자가 아닌 정신과 의사의 진료 상담 기록 같은 서술 방식이 그렇다. 어쩌면 어느 한 사람의 일기장을 정리해 놓은 것 같다.

Words 김혜원 피엠픽처스 대표,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저자



이 땅에서 태어난 여성의 역압과 차별

작가 조남주의 이같은 선택은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리얼리티와 일반화의 개인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차별에 관한 각각의 에피소드 뒤에 사회적 관련 사실들을 붙여 놓은 것을 보면 그렇다. 그런데 영화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은 소설이 정해놓은 길대로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설의 뜻을 배반하거나 왜곡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양손에 들고 영화가 가야 할 길로 갔다. 베스트셀러라고, 영화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면 편안히 성공이 보장된다는 법도 없다. 소설이 가진 페미니즘 담론에 기대를 건 사람들은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영화는 오로지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것도 내 세상이고, 그것 역시 너의 세상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소설이 집착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들까지 함께 보려 했다.

영국의 문화학자인 존 피스크는 "문화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고 했다. 소설도 물론이다. 아무리 허구와 상상을 섞어도 이야기 속에 세상에 대한 시선이 들어있다. 이 땅의 여성 역압과 차별을 고발하는 <82년생 김지영> 역시 정치적이고,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히 소설의 차원을 넘어 페미니즘 담론의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우리 모두의 평등한 시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은 아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뿌리 깊고, 역사 깊은 여성역압과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표면화되고, 용기 있는 행동들과 만남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담고 있는 담론이 어딘가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다. 여전히 우리사회는 성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소설 <82년생 김지영>까지 양극단에 가져다 놓고 있으니. 소설이 그렇듯 영화에 대한 평가 또한 각자의 몫이다. 다만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소설보다는 영화가 그 양극단의 폭을 좁혀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유는 영화다운 선택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플롯을 무시했고, 소설적 상상력이나 극적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버렸다. 그보다는 주제와 그것에 대한 담론이 더 중요했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우리사회의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를 감안하면 얼마든지 이해

가 된다. 그러나 영화는 그럴 수 없다. 영화까지 그런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현명했다.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마음을 조금 더 열고 김지영만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까지 둘러본다. 거기에는 당연히 어머니 미숙(김미경 분)과 언니 김민정(공민정 분), 직장동료들이 있고 나아가 남성인 아버지(이열 분)와 남편인 정대현(공유 분)도 있다. 어느 한 여성의 시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시선으로 김지영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 땅에 사는 여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소설이 가진 여성 중심의 불평등한 현실을 버리지 않고 곳곳에 배치한다.



영화가 말해주는 김지영의 희망

소설에서 김지영의 '빙의'는 산후우울증이 가져온 정신적 병리 현상이고, 피해자로서의 잠재의식의 표현이지만 영화에서 그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통의 방식이다. 그 공감은 외할머니에 빙의된 자신의 딸을 본 미숙이 "어쩌다 내 새끼가 이렇게 됐어"라는 말로 딸에게 감춰왔던 속마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극대화 된다. 어머니 미숙은 물론 그와 비슷한 삶을 산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남편 정대현과 이 땅에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온,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미안하고 아프고 울컥하게 만든다. 아내의 그런 모습에 마음 아파하면서 자신이 가해자일지 모른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남편 정대현의 모습도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영화적 선택들이 소설이 가진 적대감과 이분법보다 공감의 폭을 넓힌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안다. 김지영의 어머니 미숙이 말한 "그때 여자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 "요즘 애 엄마들은 다 이려고 살았어"의 '그러고'와 '이려고'가 어떤 것인지. 과거 나의 어머니가 그랬고, 지금의 내가 그렇고, 어쩌면 미래의 내 딸이 그럴지도 모른다. 소설의 김지영도, 영화의 김지영도 곳곳에서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와 현재의 비극과 모순, 절망과 분노를 일깨우려 한 소설의 김지영과 달리 영화의 김지영은 연민과 공감, 울림을 지나 열림과 희망으로 나아갔다.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길을 건너고, 남편과의 역할 전환으로 김지영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 '희망'과 '열림'이 영화가 가진 알팍한 상업적 전략에서 나온 '판타지'라고 해도 이 또한 어쩔 수 없다. 무책임하게 현실을 왜곡한다고 욕해도 할 수 없다. 영화는 그래도 늘 아름다운 세상, 보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게 해주어야 한다. WIN CLASS

11월 자산시장 전망

주식시장

국내증시 전망

(단기전망)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 또한 연말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원화 가치가 절상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장기전망) 코스피 지수가 내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가격 반등 및 중국경기 회복으로 국내기업들의 실적회복이 필수적인 사항이나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가격 역시 단기적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장기적 관점에서 코스피지수 상승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도 증시의 조정국면 연장이 예상됨

해외증시 전망

(선진국)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며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유로존과 일본 또한 통화안화 정책과 경기회복 기대감이 작용하며 강세 유지 중

(신흥국) 브라질, 인도증시의 강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브라질의 경우 기준금리를 5%까지 인하하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섰고 인도는 금리, 법인세 동반 인하를 통한 기업친화적인 정책 시행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

채권시장

국내 채권시장 전망

10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결정 이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까지 시장금리 하락속도가 과도했고 추가적인 금리인하 결정이 예상되는 내년 초까지 시간공백 발생으로 채권 매수가 위축된 것이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판단. 금리인상이 시장의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 11월 중순 이후 금리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해외 채권시장 전망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10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였으나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과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향성이 결정되는 연말까지 시간적 공백으로 당분간 미국 금리는 답보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달의 추천펀드 ONE-PAGE 리포트 (2019년 11월)

공격투자형 1등급 미래에셋브라질집중대표 (주식형)	공격투자형 2등급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 (주식형) 키움글로벌얼터너티브 (혼합, 재간접형)	적극투자형 3등급 IBK코스피200인덱스 (주식형) IBK플레인바닐라EMP (혼합, 재간접형)
위험중립형 4등급 한국투자코스피솔루션 (채권혼합형) KTB스마트시스템트레이딩 (채권혼합형)	안정추구형 5등급 BNK스팩플러스30 (채권혼합형) ABL_PIMCO글로벌투자등급 (채권, 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 (채권형)	안정형 6등급 우리하이플러스 (채권형)

■ 투자성향 ■ 펀드위험등급

판매사 **IBK기업은행**



i-ONE Bank

이 집 뱅킹 잘하네!

- 내맘대로 모을 수 있는 D-day적금
- 똑똑한 시금용비서 챗봇
- 흔들어 보내는 톡톡송금
- 안전하고 편리한 간편로그인

준법감시인 실의필 제 2019-2308호(2019.05.10) 게시기한: 2019.12.31 출금번호: JPO6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E&G 고객센터(☎1566-26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E&G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민안심 ☎330 E&G기업은행: ☎800-800-0166 E&G기업은행은 금융상황을 받지 않습니다. 유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00, e-mail: b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